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4년 11월 7일

보고서 제출자 : 김 명 호

(사)통일문제연구원

제1장 연구 개요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약속했던 핵·미사일 유예조치의 파기를 시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였다. 2022년 5월, 새정부 출범 이후에만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의 정상 각도 발사 등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 도발의 횟수와 강도를 강화하였다.¹⁾

그리고 지난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윤 정부가 출범한지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해 전략자산 전개를 합의했다. 그 이후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전략폭격기, 전투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참여하는 훈련을 수십 차례가 넘게 진행하였다. 전략자산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일컫는다. 즉,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한미 훈련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 수십 차례 진행된 것이다.²⁾

그러나 북한은 한·미 그리고 한·미·일 해상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각종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의 위협 비행,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동·서해 포격 도발 등 전례 없는 연쇄도발을 감행하였다. 도발의 회수 뿐아니라 형태에서도 다양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저수지 수중발사를 비롯하여 초대형 방사포,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술 조치선 이남 대규모 항공공격훈련, 포병 화력훈련, 장거리 순항미사일, 항공기 위협비행, 동서해상 해상 완충구역내 포격훈련 등이다.³⁾

2024년도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도발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NLL 북방 일대 영역에 포탄 200여 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2024년 1월 5일 오후 1시 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09시부터 11시까지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고, 서해 북방한계선 완충구역에 탄착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포탄이 NLL 이북에 착탄했기 때문에 당연히도 이로 인한 대한민국 국군 및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은 2024년 1월 14일 14시 55분 경, 평양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것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평가된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2023년 공

1) 고재홍, 2022, “김정은 집권기 대남도발 행태 및 의도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서, No.205, pp.1-12.

2) <http://www.minplusnews.com>

3) 고재홍, 2022, “김정은 집권기 대남도발 행태 및 의도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서, No.205, pp.1-12.

개한 화성-12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SBS는 고체연료 기반 IRBM을 예상했다. 이렇게 북한은 2024년에 들어 21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다.

(3) 대한민국에 오물 살포

2024년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토를 향하여 오물을 적재한 풍선을 무단으로 살포하였다. 사건 초기에는 단순 대남전단(빠라) 살포로 의심되었으나 낙하한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30차 살포까지는 폐전선, 거름, 생활쓰레기(폐지, 담배꽂초 등),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식별되었다. 그동안 북한이 보낸 누적된 풍선의 수는 5,670여 개의 오물이 매달린 풍선을 살포되었다.

(4)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2024년 10월 15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선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였다. 이것은 10월 9일, 북한이 미군에게 남측 연결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0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한 소식통은 우리 군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 측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⁴⁾

그리고 2024년 북한 군수공장에 걸린 현수막의 새로운 구호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보였던 구호로, '남조선괴뢰들'이 '대한민국것들'로 쓰인 구호가 새로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노출되었다.

북한은 '민족통일 지우기'에 여념이 없으나, 그럴수록 한국은 북한을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정책, 특히 북한 엘리트와 일반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한국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냉·온탕 반복, 일관성 부족에 있다. 대북정책의 국내 정치화를 탈피해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장기적 포석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⁵⁾

이와 같이 어려운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남북통일 정책' 및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① '응답자의 인적사항', ② '통일 정책 문제', ③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SPSS V.19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생각',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통

4)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6%81%ED%95%9C/%EB%8C%80%EB%82%A8%20%EB%8F%84%EB%B0%9C#s-4.13.3>

5) 한기범, 2024, 2024년 상반기 북한의 대남 도발 평가 및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 브리프,

일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할 대상' 등은 3개의 답변이 가능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543부의 설문지 가운데 인적사항에 대한 답이 없거나 설문항목에 대하여 불성실한 답을 한 5부를 제외하고, 538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제2장 기초연구

[A. 인적사항]

1. 성별

설문지에 답한 응답자(538명) 가운데 '남자'가 321명(59.7%), '여자'가 217명(40.3%)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남자	321	59.7	59.7	59.7
여자	217	40.3	40.3	100.0
합계	538	100.0	100.0	

2. 나이

설문지에 답한 응답자들의 나이는 ① '20세 이하' 58명(10.8%), ② '21-30세' 233명(43.3%), ③ '31-40세' 62명(11.5%), ④ '41-50세' 78명(14.5%), ⑤ '51-60세' 52명(9.7%), ⑥ '61세 이상' 55명(10.2%)으로 나타났다.

<표 1-2>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0세 이하	58	10.8	10.8	10.8
21-30세	233	43.3	43.3	54.1
31-40세	62	11.5	11.5	65.6
41-50세	78	14.5	14.5	80.1
51-60세	52	9.7	9.7	89.8
61세 이상	55	10.2	10.2	100.0
합계	538	100.0	100.0	

3. 직업

설문지에 답한 응답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① '대학 1학년' 83명(15.4%), ② '대

학 2학년' 65명(12.1%), ③ '대학 3학년' 87명(16.2%), ④ '대학 4학년' 38명(7.1%), ⑤ '일반인' 265명(49.3%)으로 나타났다.

<표 1-3> 직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대학 1학년	83	15.4	15.4	15.4
	대학 2학년	65	12.1	12.1	27.5
	대학 3학년	87	16.2	16.2	43.7
	대학 4학년	38	7.1	7.1	50.7
	일반인	265	49.3	49.3	100.0
합계		538	100.0	100.0	

[B. 통일 정책 문제]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①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 110명(20.4%), ② '조금 필요하다' 125명(23.2%), ③ '보통이다' 103명(19.1%), ④ '아직 시기상조다' 147명(27.3%), 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53명(9.9%)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62.8%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통일의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	110	20.4	20.4	20.4
	조금 필요하다	125	23.2	23.2	43.7
	보통이다	103	19.1	19.1	62.8
	아직 시기상조다	147	27.3	27.3	90.1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53	9.9	9.9	100.0
합계		538	100.0	100.0	

2.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통일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32명(24.5%), ②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193명(35.9%), ③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101명(18.8%), ④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12명(20.8%) 등으로 나타났다. 즉, 질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60.4%가 통일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32	24.5	24.5	24.5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193	35.9	35.9	60.4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101	18.8	18.8	79.2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12	20.8	20.8	100.0
	합계	538	100.0	100.0	

3.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① ‘100% 가능하다’ 37명(6.9%), ② ‘50% 정도 가능하다’ 92명(17.1%), ③ ‘20~30% 정도 가능하다’ 217명(40.3%), ④ ‘불가능하다’ 137명(25.5%), ⑤ ‘모르겠다’ 55명(10.2%)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4.3%가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23년도의 설문조사에서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62.9%의 응답자에 비하여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 가능하다	37	6.9	6.9	6.9
	50% 정도 가능하다	92	17.1	17.1	24.0
	20~30% 정도 가능하다	217	40.3	40.3	64.3
	불가능하다	137	25.5	25.5	89.8
	모르겠다	55	10.2	10.2	100.0
	합계	538	100.0	100.0	

4. 남북통일의 실현 전망

남북통일의 실현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① ‘아주 빠를 것이다’ 6명(1.1%), ② ‘조금 빠를 것이다’ 33명(6.1%), ③ ‘조금 늦을 것이다’ 188명(34.9%), ④ ‘아주 늦을 것이다’ 216명(40.1%), ⑤ ‘불가능할 것이다’ 95명(17.7%)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통일이 불가능하거나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92.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결과치인 93.6%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표 2-4> 남북통일의 실현 전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주 빠를 것이다	6	1.1	1.1	1.1
	조금 빠를 것이다	33	6.1	6.1	7.2
	조금 늦을 것이다	188	34.9	34.9	42.2
	아주 늦을 것이다	216	40.1	40.1	82.3
	불가능할 것이다	95	17.7	17.7	100.0
	합계	538	100.0	100.0	

5.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도

국가안보에 대한 귀하의 관심도는 ① ‘관심이 아주 많다’ 90명(16.7%), ② ‘관심이 조금 많다’ 129명(24.0%), ③ ‘보통이다’ 227명(42.2%), ④ ‘관심이 조금 없다’ 59명(11.0%), ⑤ ‘관심이 아주 없다’ 17명(3.2%), ⑥ ‘모르겠다’ 16명(3.0%)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82.9%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관심이 아주 많다	90	16.7	16.7	16.7
	관심이 조금 많다	129	24.0	24.0	40.7
	보통이다	227	42.2	42.2	82.9
	관심이 조금 없다	59	11.0	11.0	93.9
	관심이 아주 없다	17	3.2	3.2	97.0
	모르겠다	16	3.0	3.0	100.0
	합계	538	100.0	100.0	

6.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은 ① ‘가급적 빠른 통합’ 118명(21.9%), ②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별개의 국가로 존속’ 321명(59.7%), ③ ‘현 체제 유지’ 99명(18.4%)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별개의 국가로 존속하기 원하는 응답자가 8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가급적 빠른 통합	118	21.9	21.9	21.9
	평화체제유지와 별개국가로 존속	321	59.7	59.7	81.6
	현 체제 유지	99	18.4	18.4	100.0
	합계	538	100.0	100.0	

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는 ① ‘한미 간 협력’ 115명(21.4%), ② ‘북미 간 협력’ 16명(3.0%), ③ ‘한중 간 협력’ 30명(5.6%), ④ ‘한일 간 협력’ 2명(0.4%), ⑤ ‘한미일 간 협력’ 119명(22.1%), ⑥ ‘한미북 간 협력’ 256명(47.6%)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임을 나타내었다.

<표 2-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미 간 협력	115	21.4	21.4	21.4
	북미 간 협력	16	3.0	3.0	24.3
	한중 간 협력	30	5.6	5.6	29.9
	한일 간 협력	2	.4	.4	30.3
	한미일 간 협력	119	22.1	22.1	52.4
	한미북 간 협력	256	47.6	47.6	100.0
	합계	538	100.0	100.0	

8. 최우선적 정부의 대북정책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① ‘북한의 비핵화 조치’ 218명(40.5%), ② ‘평화협정 체결’ 124명(23.0%), ③ ‘남북 간 경제협력’ 71명(13.2%), ④ ‘북한의 개혁·개방’ 94명(17.5%), 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21명(3.9%)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최우선적 정부의 대북정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218	40.5	40.5	40.5
	평화협정 체결	124	23.0	23.0	63.6
	남북 간 경제협력	71	13.2	13.2	76.8
	북한의 개혁·개방	94	17.5	17.5	94.2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21	3.9	3.9	98.1
	기타	10	1.9	1.9	100.0
	합계	538	100.0	100.0	

9.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전망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망은 ① ‘크게 개선될 것이다’ 26명(4.8%), ② ‘조금 개선될 것이다’ 90명(16.7%), ③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다’ 226명(42.0%), ④ ‘조금 악화될 것이다’ 150명(27.9%), ⑤ ‘아주 악화될 것이다’ 40명(7.4%)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 가운데 21.6%는 국가 안보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표 2-9>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전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크게 개선될 것이다	26	4.8	4.9	4.9
	조금 개선될 것이다	90	16.7	16.9	21.8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다	226	42.0	42.5	64.3
	조금 악화될 것이다	150	27.9	28.2	92.5
	아주 악화될 것이다	40	7.4	7.5	100.0
	합계	532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1		
합계		538	100.0		

10.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아주 잘하고 있다’ 19명(3.5%), ② ‘조금 잘하고 있다’ 36명(6.7%), ③ ‘보통이다’ 209명(38.8%), ④ ‘조금 못하고 있다’ 113명(21.9%), ⑤ ‘아주 못하고 있다’ 155명(28.8%)으로 나타났다. 즉, 49.6%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의 결과치인 56.2%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10>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유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아주 잘하고 있다	19	3.5	3.6	3.6
	조금 잘하고 있다	36	6.7	6.8	10.3
	보통이다	209	38.8	39.3	49.6
	조금 못하고 있다	113	21.0	21.2	70.9
	아주 못하고 있다	155	28.8	29.1	100.0
	합계	532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1		
합계		538	100.0		

[C.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1. 북한과 대한민국의 민족성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민족성에 대하여 ①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282명(52.4%), ②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149명(27.7%), ③ ‘모르겠다’ 101명(18.8%)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여 분단의 세월이 우리들의 사고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응답자의 52.4%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만, 2023년의 결과치 50.3% 보다는 조금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표 3-1> 북한과 대한민국의 민족성

유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282	52.4	53.0	53.0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149	27.7	28.0	81.0
	모르겠다	101	18.8	19.0	100.0
	합계	532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1		
합계		538	100.0		

2. 북한에 대한 생각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①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가 379명(70.4%)을 차지하여, 2023년의 결과치인 63.3%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긴박한 남북관계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북한에 대한 생각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379	70.4	71.2	71.2
	협력의 대상이다	99	18.4	18.6	89.8
	통일의 대상이다	36	6.7	6.8	96.6
	경계의 대상이다	11	2.0	2.1	98.7
	도움의 대상이다	2	.4	.4	99.1
	우리의 적이다	5	.9	.9	100.0
	합계	532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1		
합계		538	100.0		

그리고 응답자들이 2차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③ 통일의 대상이다’ 196명(36.4%)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의 36.2%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표 3-3> 북한에 대한 생각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12	2.2	2.3	2.3
	협력의 대상이다	117	21.7	22.0	24.2
	통일의 대상이다	196	36.4	36.8	61.1
	경계의 대상이다	190	35.3	35.7	96.8
	도움의 대상이다	14	2.6	2.6	99.4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2	.4	.4	99.8
	우리의 적이다	1	.2	.2	100.0
합계	532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1		
합계		538	100.0		

그리고 응답자들이 3차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④ 경계의 대상이다’가 151명(28.1%)으로, 2023년의 ‘④ 경계의 대상이다’ (2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하여 많은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4> 북한에 대한 생각 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8	1.5	1.5	1.5
	협력의 대상이다	21	3.9	3.9	5.5
	통일의 대상이다	76	14.1	14.3	19.7
	경계의 대상이다	151	28.1	28.4	48.1
	도움의 대상이다	90	16.7	16.9	65.0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29	5.4	5.5	70.5
	우리의 적이다	157	29.2	29.5	100.0
합계	532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1		
합계		538	100.0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며, 한편으로 통일의 대상이고, 동

시에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에 대하여 ① ‘아주 좋다’ 1명(0.2%), ② ‘조금 좋다’ 4명(0.7%), ③ ‘보통이다’ 61명(11.3%), ④ ‘조금 안좋다’ 106명(19.7%), ⑤ ‘아주 안좋다’ 360명(66.9%)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평가는 76.5%로 나타났다.

2023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7%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024년의 결과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5>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주 좋다	1	.2	.2	.2
	조금 좋다	4	.7	.8	.9
	보통이다	61	11.3	11.5	12.4
	조금 안좋다	106	19.7	19.9	32.3
	아주 안좋다	360	66.9	67.7	100.0
	합계	532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1		
	합계	538	100.0		

4.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①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18명(3.3%), ② ‘소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137명(25.5%), ③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280명(52.0%) , ④ ‘모르겠다’ 97명(18.0%)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28.8%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결과치는 2023년의 결과치인 37.3%와 비교하면, 조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다	18	3.3	3.4	3.4
	소극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다	137	25.5	25.8	29.1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280	52.0	52.6	81.8
	모르겠다	97	18.0	18.2	100.0
	합계	532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1		
	합계	538	100.0		

5.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① ‘100% 포기할 것이다’ 7명(1.3%), ② ‘50% 정도 가능하다’ 31명(5.8%), ③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190명(35.3%), ④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72명(50.6%), ⑤ ‘모르겠다’ 32명(5.9%)으로 나타났다.

2023년 결과치와 비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84.1%)보다 2024년의 결과치 85.9%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즉,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 포기할 것이다	7	1.3	1.3	1.3
	50% 정도 가능하다	31	5.8	5.8	7.1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190	35.3	35.7	42.9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72	50.6	51.1	94.0
	모르겠다	32	5.9	6.0	100.0
	합계	532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1		
합계		538	100.0		

6.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북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에 대하여 ① ‘100% 가능하다’ 4명(0.7%), ② ‘50% 정도 가능하다’ 43명(8.0%), ③ ‘조금 어렵다’ 309명(57.4%), ④ ‘절대 불가능하다’ 137명(25.5%), ⑤ ‘모르겠다’ 39명(7.2%)으로 나타났다. 즉, 북핵문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7%로 나타나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82.9%)에 비하여 월등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치는 2023년의 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82.3%)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표 3-8> 북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 가능하다	4	.7	.8	.8
	50% 정도 가능하다	43	8.0	8.1	8.8
	조금 어렵다	309	57.4	58.1	66.9
	절대 불가능하다	137	25.5	25.8	92.7
	모르겠다	39	7.2	7.3	100.0
	합계	532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1		
합계		538	100.0		

7.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의 첫 번째 내용은 ‘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334명(6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최우선 대북정책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334	62.1	62.7	62.7
평화협정 체결	96	17.8	18.0	80.7
남북 간 경제협력	37	6.9	6.9	87.6
북한의 개혁 및 개방	43	8.0	8.1	95.7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13	2.4	2.4	98.1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5	.9	.9	99.1
남북 간 문화 및 체육	4	.7	.8	99.8
교류				
남북 간 교육협력	1	.2	.2	100.0
합계	533	99.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9		
합계	538	100.0		

그 다음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은 '㉔ 평화협정 체결'로 218명(4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최우선 대북정책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37	6.9	7.0	7.0
평화협정 체결	218	40.5	41.0	47.9
남북 간 경제협력	85	15.8	16.0	63.9
북한의 개혁 및 개방	107	19.9	20.1	84.0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32	5.9	6.0	90.0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37	6.9	7.0	97.0
남북 간 문화 및 체육	12	2.2	2.3	99.2
교류				
남북 간 교육협력	4	.7	.8	100.0
합계	532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1		
합계	538	100.0		

3번째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으로 '㉔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이 129명(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최우선 대북정책 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29	5.4	5.5	5.5
평화협정 체결	30	5.6	5.6	11.1
남북 간 경제협력	101	18.8	19.0	30.1
북한의 개혁 및 개방	129	24.0	24.2	54.3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63	11.7	11.8	66.2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73	13.6	13.7	79.9
남북 간 문화 및 체육	69	12.8	13.0	92.9
교류				
남북 간 교육협력	38	7.1	7.1	100.0
합계	532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1		
합계	538	100.0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으로 먼저 북한의 비핵화이며, 이어서 평화협정 체결,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생각하고 있었다.

8.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선두 주자에 대하여 ‘① 한국’ 314명 (58.4%)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번째의 국가는 ‘③ 북한’ 178명(33.1%), 3번째는 ‘③ 미국’ 112명(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에 대한 결과치인 1번째 한국, 2번째 미국, 3번째는 북한의 순서와 비교할 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국	314	58.4	59.0	59.0
	미국	43	8.0	8.1	67.1
	북한	149	27.7	28.0	95.1
	중국	7	1.3	1.3	96.4
	일본	2	.4	.4	96.8
	러시아	2	.4	.4	97.2
	국제사회	10	1.9	1.9	99.1
	한국 국민 개개인	5	.9	.9	100.0
	합계	532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1	
합계		538	100.0		

<표 3-13>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국	112	20.8	21.1	21.1
	미국	160	29.7	30.2	51.3
	북한	178	33.1	33.6	84.9
	중국	37	6.9	7.0	91.9
	일본	4	.7	.8	92.6
	러시아	3	.6	.6	93.2
	국제사회	20	3.7	3.8	97.0
	기업	6	1.1	1.1	98.1
	시민단체	3	.6	.6	98.7
	한국 국민 개개인	7	1.3	1.3	100.0
	합계	530	98.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	1.5		
합계		538	100.0		

<표 3-14>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국	40	7.4	7.6	7.6	
	미국	112	20.8	21.2	28.7	
	북한	108	20.1	20.4	49.1	
	중국	67	12.5	12.7	61.8	
	일본	9	1.7	1.7	63.5	
	러시아	20	3.7	3.8	67.3	
	국제사회	105	19.5	19.8	87.1	
	기업	12	2.2	2.3	89.4	
	시민단체	11	2.0	2.1	91.5	
	한국 국민 개개인	45	8.4	8.5	100.0	
	합계	529	98.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1.7		
	합계		538	100.0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2024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지에 답한 응답자(538명) 가운데 ‘남자’는 321명(59.7%), ‘여자’는 217명(40.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나이는 ① ‘20세 이하’ 58명(10.8%), ② ‘21-30세’ 233명(43.3%), ③ ‘31-40세’ 62명(11.5%), ④ ‘41-50세’ 78명(14.5%), ⑤ ‘51-60세’ 52명(9.7%), ⑥ ‘61세 이상’ 55명(10.2%)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32명(24.5%), ②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193명(35.9%), ③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101명(18.8%), ④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12명(20.8%) 등으로 나타났다. 즉, 질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60.4%가 통일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의 나이는 ① ‘20세 이하’ 58명(10.8%), ② ‘21-30세’ 233명(43.3%), ③ ‘31-40세’ 62명(11.5%), ④ ‘41-50세’ 78명(14.5%), ⑤ ‘51-60세’ 52명(9.7%), ⑥ ‘61세 이상’ 55명(10.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① ‘100% 가능하다’ 37명(6.9%), ② ‘50% 정도 가능하다’ 92명(17.1%), ③ ‘20~30% 정도 가능하다’ 217명(40.3%), ④ ‘불가능하다’ 137명(25.5%), ⑤ ‘모르겠다’ 55명(10.2%)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4.3%가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에 대한 귀하의 관심도는 ① ‘관심이 아주 많다’ 90명(16.7%), ② ‘관심이 조금 많다’ 129명(24.0%), ③ ‘보통이다’ 227명(42.2%), ④ ‘관심이 조금 없다’ 59명(11.0%), ⑤ ‘관심이 아주 없다’ 17명(3.2%), ⑥ ‘모르겠다’ 16명(3.0%)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82.9%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는 ① ‘한미 간 협력’ 115명(21.4%), ② ‘북미 간 협력’ 16명(3.0%), ③ ‘한중 간 협력’ 30명(5.6%), ④ ‘한일 간 협력’ 2명(0.4%), ⑤ ‘한미일 간 협력’ 119명(22.1%), ⑥ ‘한미북 간 협력’ 256명(47.6%)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임을 나타내었다.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망은 ① ‘크게 개선될 것이다’ 26명(4.8%), ② ‘조금 개선될 것이다’ 90명(16.7%), ③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다’ 226명(42.0%), ④ ‘조금 악화될 것이다’ 150명(27.9%), ⑤ ‘아주 악화될 것이다’ 40명(7.4%)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 가운데 21.6%는 국가 안보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민족성에 대하여 ①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282명(52.4%), ②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149명(27.7%), ③ ‘모르겠다’ 101명(18.8%)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여

분단의 세월이 우리들의 사고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응답자의 52.4%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만, 2023년의 결과치 50.3% 보다는 조금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①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가 379명(70.4%)을 차지하여, 2023년의 결과치인 63.3%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긴박한 남북관계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에 대하여 ① '아주 좋다' 1명(0.2%), ② '조금 좋다' 4명(0.7%), ③ '보통이다' 61명(11.3%), ④ '조금 안좋다' 106명(19.7%), ⑤ '아주 안좋다' 360명(66.9%)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평가는 76.5%로 나타났다. 같은 문항에 대하여 2023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7%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024년의 결과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①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18명(3.3%), ② '소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137명(25.5%), ③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280명(52.0%) , ④ '모르겠다' 97명(18.0%)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28.8%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① '100% 포기할 것이다' 7명(1.3%), ② '50% 정도 가능하다' 31명(5.8%), ③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190명(35.3%), ④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72명(50.6%), ⑤ '모르겠다' 32명(5.9%)으로 나타났다.

2023년 결과치와 비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84.1%)보다 2024년의 결과치 85.9%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즉,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에 대하여 ① '100% 가능하다' 4명(0.7%), ② '50% 정도 가능하다' 43명(8.0%), ③ '조금 어렵다' 309명(57.4%), ④ '절대 불가능하다' 137명(25.5%), ⑤ '모르겠다' 39명(7.2%)으로 나타났다. 즉, 북핵문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7%로 나타나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82.9%)에 비하여 월등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치는 2023년의 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82.3%)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선두 주자에 대하여 '① 한국' 314명(58.4%)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번째의 국가는 '③ 북한' 178명(33.1%), 3번째는 '③ 미국' 112명(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에 대한 결과치인 1번째 한국, 2번째 미국, 3번째는 북한의 순서와 비교할 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북한 사정을 분석해 보면, 당분간 북한의 대남정책은 호전성을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설문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국민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도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